복식문화연구
제8권 제1호 65~76(2000)

여대생의 의복착용동기와 패션경향

柳 志 憲* · 韓 明 淑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과 강사* · 교수

The Motive of Clothing-Wearing and Fashion Trend for Female College Students

Ji-Hun Yu* and Myung-Sook Han
Instructor*,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of clothing-wearing motives, to analyze tendency of fashion in campus, and to propose fashion merchandising plans and marketing strategies of companie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Research had been done during 1 week each on April and October in 1998 and 1999.

Sixty-two students in spring semester and 54 students in fall semester were surveyed and analyzed. Their grades and majors were not considered in this study.

Fashion Diary had been written by students and then their statements were analyzed by the means of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1. Clothing-wearing motives were classified with 'group depending on daily work', 'group depending on image', 'group depending on body supplement', 'group depending on weather', 'group of fashion following', 'group depending on courtesy', 'group depending on mood', and 'group of unconcerning'.
2. The fashion tendency of the students were layered look and they preferred casual styles, such as round t-shirts, jean pants, and cardigans.

   The color of white, black, and gray were prevalent for top wear, and the color of blue, black, beige for bottom wear in both seasons.

   For shoes, color of black, brown, white were popular. For bags, black, blue, and khaki color were prevailed.
3. The proposal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Production of clothing enforced functional and practical base is wanted for 'group depending on daily work'.
   2) Designs considering body parts such as hip, arm hole, shoulder, and thigh are needed.
   3) Utilization of new materials such as waterproof with ventilation, opaque(means 'not see-through'), antipollution finishing process are required.
   4) Simple designs of clothing which could be performed by herself with various accessories. Thermochromic materials are wanted for 'group of fashion following.'
   5) Diversity of semi-suit is required for 'group depending on courtesy.'

Ⅰ. 서 론

오늘날 유행은 지배적인 스타일이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스타일이 동시에 유행하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 또는 개인의 사정에 따른 개별적인 의복행동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이 요구되는 현상이라 본다.

과거 수세기 동안 의복은 더위나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거나, 해충으로부터 신체를 방호하거나, 수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착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례를 위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유행을 따라서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복착용의 동기는 항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화 발전되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의복착용 동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들의 조합이 가능하리라 본다.

의복착용 동기에 관한 많은 연구가 19세기말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대학생의 캠퍼스 복식에 대한 착용 동기를 조사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복식현상에 나타난 행동이 이상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들의 의복착용동기를 조사하여 유형화하기 위한 제 1차적인 연구로서 질적 연구방법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학생 개인의 수준에서 나타난 의복 착용의 동기를 조사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의복 착용동기의 결과로서 나타난 대학생의 봄·가을학기의 패션 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끝으로, 대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상품기획 및 마케팅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개인의 의복착용 결과가 곧 그 시대의 유행현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의 의복착용 동기를 분석하여 차별성에 따라 유형화하며, 이러한 유형화가 어떠한 캠퍼스 복식현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논의해 보는 본 연구는, 미래 대학생들의 복식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의류상품 기획 및 target 마케팅 전략에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복착용의 동기 고찰

의복착용의 동기에 관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정숙성 이론, 신체보호이론, 장식성 이론'을 들 수 있다. 이중 '정숙성 이론'은 인간이 인체의 특정 부위를 가려 수치심을 피하고자 의복을 착용했다는 초기 이론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수치심의 기준이 문화, 시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Westermark(1921)는 사람들이 신체의 특징을 강조하고자 의복을 착용한다고 하여 의복착용의 동기를 '성적 매력 추구'로 보았으며, Harms(1938)는 의복착용동기를 프로이드적 분석으로 접근하였으나 그 역시 인간은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다는 '유인성'의 이론을 피력하였다. 복식가인 Laver(1969) 또한 여성의 에로틱 부위를 의복으로 가림으로서 보다 에로틱하게 보이거나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다고 보아 역시 의복 착용의 동기를 '매력 추구'로 설명하고 있어 이들 모두 정숙성 이론과는 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의복이 착용자의 '신분을 표시'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사회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Veblen(1899)은 이미 100여년 전에 의복행동으로 지위이론을 설명한 최초의 학자라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의복이나 장신구를 통해 자신의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를 과시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여 의복착용동기를 신분과 지위의 과시욕으로 보았다.

Flügel(1930)은 처음으로 정신분석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의복과 관련되는 다양한 동기를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복을 착용하며, 이렇게 착용한 의복은 신체를 감추기도 하지만, 강조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체의 외형적 크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운동감까지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의복착용 동기를 '자아 향상과 매력추구의 양면성'으로 보는 견해이다.

Horn & Gurel(1981)은 작업복이나 유니폼,

또는 실험복 등은 성적 자극을 줄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에 드레스나 파티복 등은 성적 자극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복은 성과 성적 매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적매력을 줄이는 역할'과 '성적 매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의복착용 동기의 아이러니칼한 양면성을 주장하였다.

Ryan(1952)의 여대생에 대한 의복착용동기 연구에서는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다른 연구(1965)에서 자아를 신체적 자아(somatic self)와 사회적 자아(social self)로 나누었으며, 사회적 자아를 다시 개인적 자아와 집단 일원으로서의 자아로 나누어 의복과 관련시킨 연구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신체적 자아'는 신체의 모든 물리적 특성인 자기 확대, 신체 이미지, 신체 만족(body cathexis)을 포함시켰으며, '개인적 자아'는 역할 규정과 행동의 중요한 요소로, '집단 일원으로서의 자아'는 집단 소속감과 사회 참여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각 개인은 '개인적 · 사회적으로 각자의 목적에 맞는' 의복을 필요로 하며,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의복착용의 동기를 확대 해석하였다.

Lapitsdy(1961)는 그의 연구에서 성인 여성들이 의복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미적 가치'라는 결과를 얻어, 성적매력을 보다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vans(1964)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의복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oue(1980)는 모든 동기가 반드시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부여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외 그러한 견해로부터 의복착용의 동기 역시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Langer(1959), Horn & Gurel(1981), Kaiser(1985)와 같은 학자들은 의복이 기후나 위험한 물질 또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령을 쫓거나 행운을 바라거나 타인과 융합하기 위한 '심리적 보호' 차원에서 착용되었다고 하여, 의복 착용 동기를 '신체적 · 심리적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Kaiser(1985)는 의복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생활주기 내에서의 지위'를 전해주기도 한다고 하여 lifestyle이 의복행동, 즉 의복착용동기와 관련 있음을 이미 시사하였다.

정인희, 이은영(1999)은 오늘날 유행현상이 지배적 스타일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Kamakura와 Wedel의 테일러 면접기법의 개념을 도입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의복착용 동기에 따라 소비자를 '의복 최소 인식집단', '상황적합성 인식집단', '심리적 편안함 인식집단', '인상관리 집단', '구별욕구집단', '주의집중욕구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의복착용동기와 유행현상의 상호작용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의복착용 동기는, 1) 착용자를 정숙하게 보이기 위해 2) 착용자의 성적매력 강화를 위해 3)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4)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5) 매력과 자아 향상의 양면성 추구를 위해서 6)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서 7) 상징적 상호 작용적 목적을 위해서 8) 일상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9) 차별화를 위해서 10) 주의집중욕구를 위해서 11) 물리적 또는 심리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로 정리할 수 있다.

2. 패션경향

1998년과 1999년도 패션은 단순함의 극치를 이루는 '미니멀 리즘'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60년대의 '히피', 오리엔탈적 특징을 지니는 '에스닉 룩', 파격적이고 섹시하면서 그래머러스한 '그램룩',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스포티룩', 퓨전, 테크노, 하이 테크, 혼돈과 혼합을 상징하는 '퓨처리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의는 전반적으로 '레이어드 룩'의 경향을 띠고 있다. 즉, 남방과 티를 넥 슬리브리스 니트를 겹쳐 입거나, 슬리브리스 톱끼리 겹쳐 입는 형식이었으며, 라운드 넥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나 흰색의 면티, 니트 조끼가 그 대표적이었다. 그외에

한문이나 용무늬가 프린트된 원색조의 티와 일본풍의 캐릭터 티도 눈에 띠어 오리엔탈리즘을 느낄수 있었다. 대학생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티셔츠 위에 자켓이나 가디건을 겹쳐 입는 것이 유행되었다. 자켓(마이)은 허리부분에 포인트를 주지 않은 편안한 스타일로서 칼라는 노칼라의 하이넥이며 원 버튼 또는 히든 버튼의 8부 소매가 유행하였다. 소재는 시스루 소재가 작년에 이어 계속 유지되었다.

색상은 주로 흰색, 회색, 베이지색, 카키색이었으나 점차 파스텔톤으로 다양해지는 경향을 띠었다.

하의로는 다양한 소재, 색상의 무릎길이 또는 미니의 플리츠 스커트와 일명 공주치마라고 하는 '아코디언 스커트'가 유행했으며, 원피스로는 공주풍의 하이 웨이스트, 시스루 케이프 스타일 등 A라인의 무릎아래 길이가 유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피스나 스커트보다는 많은 여대생들이 여유와 액티브성을 고려한 배기 팬츠, 짙은 청색의 바지 아랫단을 위로 접어 올리는 빈티지 룩 업진, 열은 청색의 아이스 블루 진, 화이트 진, 바지 밑단 양쪽을 가르는 슬릿 진, 몸통과 바지통이 여유로운 오버롤즈와 같은 다양한 진팬츠, 1960년대를 상기시키는 칠부 길이의 버뮤다 팬츠, 나팔바지, 와일드 팬츠, 스트링 팬츠, 워크팬츠, 면 바지 등과 같이 활동하기 편리한 바지류를 선호하였다.

신발은 심플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스포티즘의 영향을 받은 듯 하다. 단화 스타일의 운동화인 '스니커즈', 뒷굽이 앞부분와 밑창까지 하나로 연결된 통굽, 굽 낮은 구두로서 '이지 슈즈',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펌프스와 메리제인 슈즈', '오픈토 슈즈', '샌들과 슬리퍼'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색상은 검정과 흰색, 크림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년보다 다양한 파스텔톤의 경향을 띠었다.

가방은 세미힙합에 어울리는 '네추럴 베이직 배낭'으로서 예년의 이스트팩이나 잔스포츠가 저물고 루카스가 돌풍을 일으켰으며 이외에도 MCM이나 프라다와 같이 정장이나 세미 정장에 잘 어울리는 '정장풍 배낭'도 인기를 끌었다. 배낭이외에는 면바지와 티셔츠에 어울리는 '크로스 백', 칠보바지에 어울리며 몸에 밀착 착용하는 '보디백', 공주패션과 어울리는 '토드백' 등이 유행하였는데 대부분이 유티리티 시크(utility chic), 즉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최근 대학생들의 캠퍼스 내에서 볼 수 있는 의복행동의 다양한 변인들을 조사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시도로서, 선행되어진 명확한 연구 틀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 개개인의 서술에 의존한 질적인 분석 방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기와 관련하여 1998년과 1999년에 봄 학기인 4월중 1주와 가을학기인 10월중 1주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이처럼 4월과 10월을 조사기간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나라 서울지역 4월의 평균기온은 11.8℃이고, 10월의 평균기온은 14.3℃[1]로서 봄과 가을 두 계절 중 연중 기온 차가 가장 적은 달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춘·추 의복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가를 비교 분석하여 시즌별 시장세분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이다.

조사는 1998년 1학기에 38명, 1999년 1학기에 32명, 그리고 1998년 2학기에 29명과 1999년 2학기에 30명에게 이루어졌으나 이중 1학기에 62명, 2학기에 54명만이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대상자들은 S 대학교, K 대학교, D 대학교의 여대생이었으며, 학년과 전공은 고려하지 않았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대상자들이 실제로 착용한 매일 매일의 복장을 봄·가을학기동안 각각 1주간 패션일기 형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착용한 복식을 스타일화 또는 사진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유기술형식을 택한 것은 대상자들의 의복 관심도, 선호하는 의복의 형태 및 색상을

1) 1999년도 기상청 자료.

보다 현실적이면서 총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그들이 왜 그 옷을 택해서 입었는가를 명확히 서술하도록 하여 정량분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사실적인 의복착용동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술내용은 속옷을 제외한 상의, 하의, 신발 그리고 가방류로 한정하였다. 복식의 아이템과 색상은 자신이 아는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그날 왜 그 옷을 선택하여 착용하게 되었는가를 반드시 서술하도록 하였다.

3. 자료정리 및 분석

대상자들에 의해 서술되어진 분석자료 중 그들이 일주일 동안 착용한 복식의 빈도 수는 중복응답 형식으로 체택되었으며, 대상자들의 복식은 상의, 하의, 신발, 가방으로 제한하였다. 의복은 형태별 명칭과 색상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신발과 가방은 단지 색상 경향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패션일기의 내용분석은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분석하였으며, 캠퍼스 패션 경향에서 나타난 의복의 종류는 대상자들이 기술한 의복의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현장의 복식용어를 그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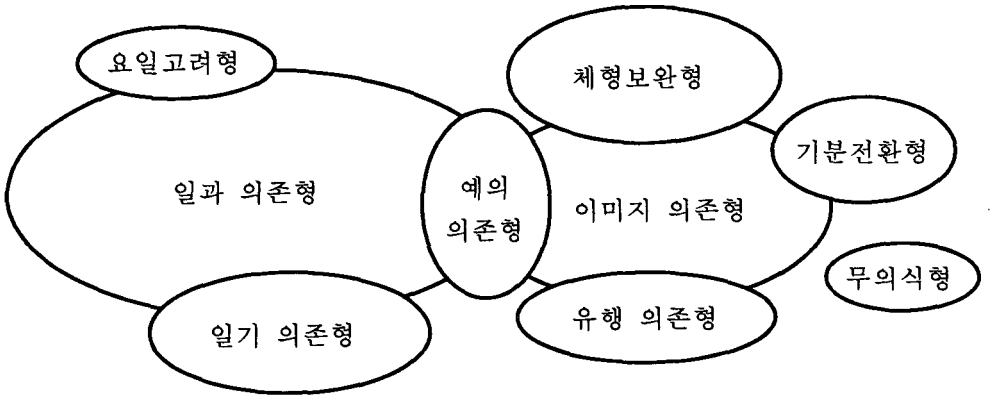
Ⅳ. 자료 분석 결과 및 논의

분류 분석결과, 실질적인 의복착용동기를 아래와 같이 9개로 유형화하여 상호간의 관련성을 포지셔닝화 할 수 있었으며, 봄 · 가을학기의 패션 경향을 패션 아이템별, 색상별로 비교할 수 있었다.

1. 의복착용 동기의 유형화 및 모델 해석

조사대상자들의 서술로부터 분석한 의복착용동기를 그룹화한 결과, 일과(日課) 의존형, 이미지 의존형, 체형 보완형, 일기(日氣) 의존형, 유행 의존형, 예의 의존형, 기분 전환형, 요일(曜日) 고려형, 무의식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들 유형의 포지셔닝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일과(日課) 의존형'은 그 날의 강의 시간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강의 과목이 실기인지 이론인지를 고려하는 경우와 방과후의 일과 즉, 미팅, 데이트, 친구와의 약속, 병 문안이나 친척집 방문, 쇼핑, 과제를 위한 거리조사, 도서관 방문 등을 고려해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로서 그 날의 일과에 따라 의복 선택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의복은 매우 다양하다. 즉, 기



<그림 1> 의복착용의 동기 유형 포지셔닝

능성과 활동성을 강조한 캐주얼복에서부터 격식을 갖춘 정장웨어까지, 그 색상과 소재 역시 다양하리라 본다.

이 그룹은 정인희 · 이은영(1999)이 분류한 '상황적합성 인식 집단'과 Ryan(1965)의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와 의복과의 관계 연구 결과로부터 확장 가능한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목적에 따라 의복을 선택 착용'하는 경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이 여러 의복착용 동기 중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의존형'은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미팅을 할 때, 자신을 보다 여성스럽고 얌전하며 또는 차분해 보이도록 의복을 착용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사교적이거나 활동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의복을 선택하는 유형이 있다. 여학생이지만 가끔은 스포티브하거나 터프한 인상을 보이고자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수의 저학년들은 발랄해 보이거나 경쾌하게 보이고 싶어하며, 귀엽게 보이기를 원하여 의복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고학년들의 일부 학생들은 세련되게 보이거나, 우아하게 보이려고 또는 지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학년의 고 · 저를 막론하고 모든 여대생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려고' 의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감성적인 학생들은 '화사하게 보이려고, 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가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등과 같이 '계절적 이미지'를 의복으로서 살리려는 그룹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자신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학생다운 무난한 이미지'를 의도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의복이 착용자의 이미지 추구를 위해 착용된다는 것을 입증한 선행 연구로는 Flügel(1930), Ryan(1952), Lapitsdy(1961) 등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 동기는 '일과 의존형'과 함께 의복 착용 동기의 핵심동기로 나타나고 있다.

'체형 보완형'은 여대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불만으로 여기는 커다란 히프, 굵은 다리와 팔, 허리 살을 감추어서 보다 날씬해 보이고자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거나, 의복의 색상이나 무늬, 구두의 높 · 낮이, 바지 형태로서 키를 커 보이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그 외에도 자신의 빈약한 가슴이나 너무 말라 보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 무늬 줄 의복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둥근 얼굴형을 보완하기 위해 V자형 네크라인의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그룹은 Westermark(1921), Harms(1938), Laver(1969) 등과 같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성적 매력 추구'와 일맥상통하나 이들에게는 성적매력의 개념보다는 신체적 단점을 보완하려는 욕구 동기가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기(日氣) 의존형'은 아침에 TV나 신문에서 일기예보를 보고 그것을 참고로 의복을 선택하거나, 어제 추워서 너무 떨었다던가 아니면 더워서 혼난 경험을 토대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경우이다. 비가 오는 날에는 반바지나 스커트를 착용함으로써 옷이 젖는 것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세탁 가능한 소재를 선택함과 동시에 보온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복행동은 Langer(1959), Horn & Gurel(1981), Kaiser(1985) 이외에 여러 초기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주장된 '신체 보호 목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의존형'의 보조 동기로서 나타나고 있다.

'유행 의존형'은 '체형 보완형'과 함께 '이미지 의존형'의 보조 동기로 볼 수 있는 동기 유형 집단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옷이라서, 새로이 산 옷이라서, 친구가 입은 옷이 예뻐 보여서 자신도 그러한 의복을 착용한 그룹이다. 이 유형은 타인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적 보호'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다지 높은 빈도 수를 차지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최근의 젊은 세대들이 유행보다는 자신만의 개성, 독특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의 의존형'은 '일과 의존형'과 '이미지 의존형'에 공유되는 동기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주로 교수님과의 면담이 있거나, 자신이 발표의 주인공일 경우, 결혼식이나 음악회 등에 참석한다거나, 교회나 성당에 일을 보러 갈 경우를 의식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자 의복을 선택해서 착용

하는 그룹이다. 본 연구에서 이들 그룹은 주로 상의와 하의를 투피스 형식으로 입으나, 세미 정장풍이거나 단순히 색상을 맞추는 정도, 또는 긴 소매에 긴 바지 정도가 적당한 차림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색상은 검정, 회색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행 색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신발도 평소와는 달리 구두류를 신으며, 가방도 배낭이 아니라 어깨에 매는 작은 백 종류가 이들에게는 예의를 갖춘 복식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기분 전환형'은 '이미지 의존형'의 보조 동기이나 '체형 보완형이나 유행 의존형'보다는 소극적 동기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기분이 가라앉아서, 이 · 삼일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는다던가, 왠지 그 옷이 입고 싶어서' 등과 같이 그 날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이다. 평소 자신의 스타일과는 색다른 의복 연출을 하거나 오랫동안 안 입었던 의복들을 꺼내 착용함으로써 기분을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요일(曜日) 고려형'은 '일과 의존형'의 보조 동기 유형으로서 일주일 중에서 첫 시작인 월요일을 다른 요일보다 색다른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을 띄는 그룹이다. 이들은 주로 월요일에 활기차게, 밝게 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강렬한 색상의 의복이나 신체에 긴장감을 주는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함으로서 그 주(週)의 활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무의식형'은 독립적 위치의 유형으로서 '입던 옷을 빨아서, 옷장을 뒤지기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어제 입었던 옷을 그냥 입는다'는 그룹이다. 이들은 의복이란 입어야하니까 걸치고 다닌다는 식의 무의식 또는 무관심적 태도를 보일 뿐 남을 의식한다든가, 미 추구에는 관심이 없으며 소유한 의복의 종류도 적은 그룹이다. 이 유형은 '동기가 반드시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부여된다'고 보는 Inoue의 생각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동기 유형이다. 여대생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본 연구에서는 낮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만약 남학생까지 포함시킨다면, 빈도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라 본다.

2. 학기별 의복착용 동기 비교

봄 학기동안인 4월달의 의복착용동기 분석 결과로는 '일과 의존형'이 전체의 4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이미지 의존형'이 29%를 차지했다. 즉, '일과 의존형'과 '이미지 의존형'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체형 보완형'은 8%, '일기 의존형'은 7%, '유행 의존형'과 '예의 의존형'은 각각 3%씩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기분 전환형', '요일 고려형', '무의식형'순으로 나타났다.

가을 학기인 10월달의 조사에서는 '일과 의존형'이 39%, '이미지 의존형'이 19%로 봄 학기와 동일하게 1, 2위를 차지해서 여대생들의 의복착용 동기의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위로는 '일기 의존형'이 19%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예의 고려형', '체형 보완형', '유행 고려형', '무의식형', '기분 전환형', '요일 고려형'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로부터 여대생들은 학교에 올 때 제일 먼저 그날의 강의와 방과후 '일과'를 고려해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되 그들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봄 학기에는 가을 학기보다 학생들이 '체형 보완'에 보다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겨울에 많은 옷을 입어 체형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옷이 얇아지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을 학기동안엔 일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봄보다 높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번 가을에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대생들은 자신의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의복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요즈음 대학생들은 형식적이거나 타인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현실과 실용성과 편리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었으며, 선행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일기와 요일'을 의식해서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질적 접근법에 의한 분석이기 때문에 비율과 순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며, 단지 대학생의 의복착용 동기 요인의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과 같은 9가지 유형화가 가능했음을 밝힌다.

3. 캠퍼스 패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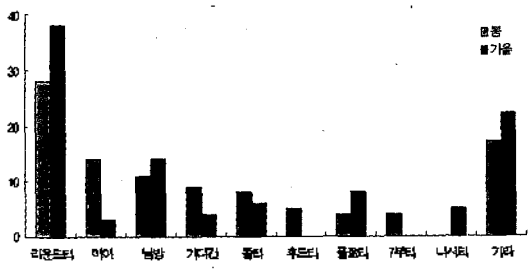
1) 패션 아이템

4월중 여대생들이 착용한 상의의 종류로는 라운드티, 쫄티, 후드티, 폴로티, 목티, 칠부티 등과 같은 티셔츠 위에 마이, 남방, 조끼, 가디간을 레이어드 시키거나 바바리나 하프코트 또는 잠바를 덧입는 캐주얼 형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원피스나 투피스 정장은 간혹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티셔츠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착용된 이유는 대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의 일과(日課)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불편을 피하기 위한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2겹 또는 3겹으로 코디하기 때문에 티셔츠 중에서도 칼라가 없는 라운드 티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티셔츠 위에 덧입는 옷으로는 마이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으며, 그 다음은 남방, 가디건, 조끼 순으로 나타났다. 쫄티, 후드티, 폴로티는 최근 1~2년간 젊은 층에서 유행해온 아이템으로 여전히 선호되어지고 있었다.

봄·가을학기 동안 조사대상자들이 착용했던 상의의 종류 및 빈도를 제시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가을학기인 10월중 여대생들이 많이 착용한 상의의 순은, 라운드티, 남방, 폴로티, 쫄티, 나시, 7부티, 후드티였으며, 이외에 니트, 조끼, 가디간, 마이, 원피스 등도 가끔씩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 학기와 가을학기동안의 의복착용 빈도수를 비교해 볼 때, 라운드티는 학기에 관계없이 가장 선호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가을학기엔 마이와 가디간의 착용 빈도수가 봄 학기 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후드티나 7부티는 봄에 많이 착용하였고, 나시티는 가을에 주로 착용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봄에는 두겹, 또는 세겹으로 의복을 연출하고, 가을학기동안엔 여름의 연속이라 한겹으로 의복을 연출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이렇게 봄과 가을에 대학생들의 의복 연출이 다른 것은 새 학기인 봄 학기에는 신입생 MT 및 학생행사 그리고 교수와의 면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그보다도 우리 나라의 10월 평균 기온이 4월보다 2~3℃ 높은 기후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림 2> 상의의 종류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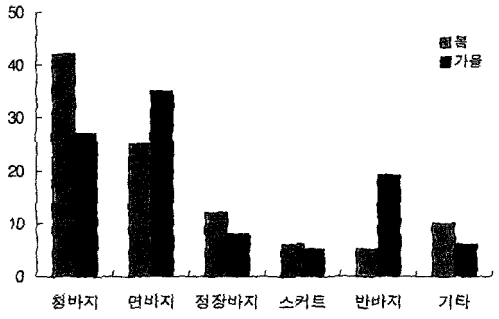
봄 학기동안 착용한 하의의 종류는 청바지(구제·빈티지, 드림, 힙합, 일자, 타이트), 면바지, 정장바지, 반바지, 나팔바지, 멜빵바지, 레깅스 등 이었으며, 스커트(미니, 롱, 랩, 주름)는 바지보다 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을학기동안엔 면바지, 청바지, 반바지, 정장바지, 스커트, 7·8부 바지, 멜빵바지 순으로, 젊음의 상징인 청바지보다 면바지가 더 많이 착용되었고, 반바지의 착용 빈도 수는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봄보다 높은 가을의 월 평균기온이 의복착용 동기에 과거보다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여대생들의 복식행동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스커트를 즐겨 입거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이 힐을 신었던 과거 여대생들의 복식행동보다 훨씬 캐주얼화 되었으며, 복식으로 성적 매력이나 미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실용성, 편리성 및 신체 보호성을 훨씬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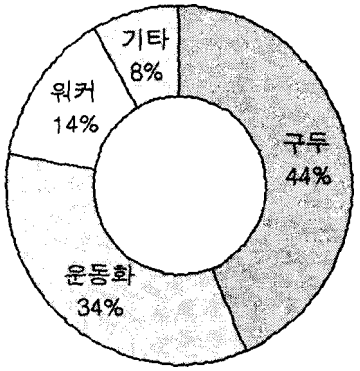
봄·가을학기 동안 여대생들이 착용했던 하의의 종류 및 빈도를 제시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신발의 종류로는 로퍼, 샌달, 통굽, 부츠, 스트랩 슈즈와 같은 구두류와 운동화류, 워커, 슬리퍼 등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착용 빈도순은 봄 학기와 가을학기에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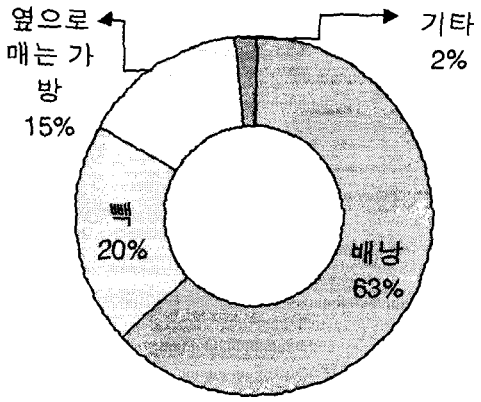
가방으로는 책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배낭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정장용 백과 옆으로 메는 가방 순으로 나타났다. 가방 역시 학기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하의의 종류 및 착용빈도



<그림 4> 신발의 종류 및 착용빈도



<그림 5> 가방의 종류 및 착용빈도

여대생들이 신고 사용했던 신발과 가방의 종류 및 빈도를 제시해 보면 〈그림 4〉, 〈그림 5〉와 같다.

2) 패션 칼라

봄 학기동안 상의에서 가장 많이 착용되어진 색상은 흰색이며, 그 다음은 검정, 회색, 청색, 베이지색, 갈색 · 하늘색 · 초록색, 노랑색, 카키색, 분홍색 순으로 무채색 계열과 파스텔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에서는 청바지를 가장 자주 착용함으로써 단연 청색 계열이 우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검정, 베이지, 회색, 갈색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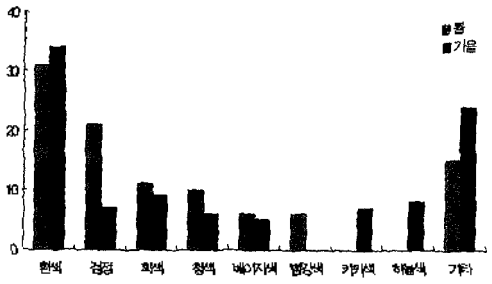
신발에서는 검정색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은 갈색, 흰색, 황토색, 청색, 베이지색, 회색, 빨강색 순으로 나타났다.

가방에서 역시 검정가방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은 갈색, 카키색, 청색 순으로 나타났다.

가을 학기동안 상의로는 역시 흰색이 가장 많이 착용되었으며, 회색, 하늘색, 카키색, 검정색, 청색, 베이지색, 분홍색, 녹색, 빨강색, 갈색, 자주색순으로 나타났으나 봄 학기보다 색상이 밝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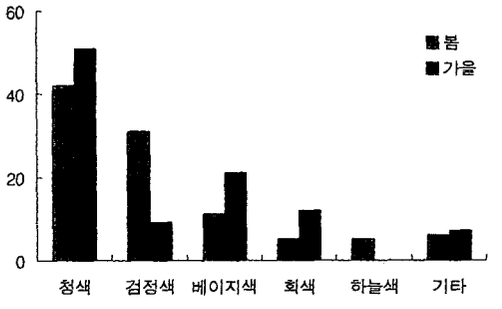
하의는 청색, 베이지색, 회색, 검정, 흰색 · 카키색, 갈색 순으로 봄보다 밝아지는 경향을 띄었다.

신발의 색상은 흰색, 검정, 황토색, 갈색, 베이지색, 청색, 회색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방은 검정, 청색, 카키색, 베이지색, 회색, 자주색, 갈색 순으로 봄 · 가을 학기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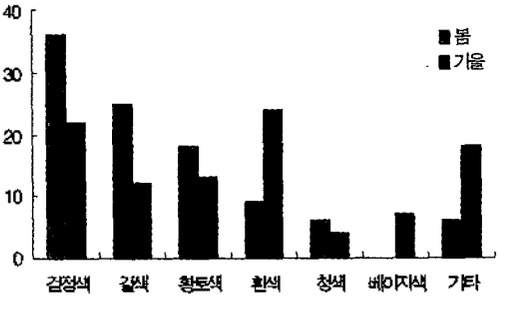


<그림 6> 상의의 칼라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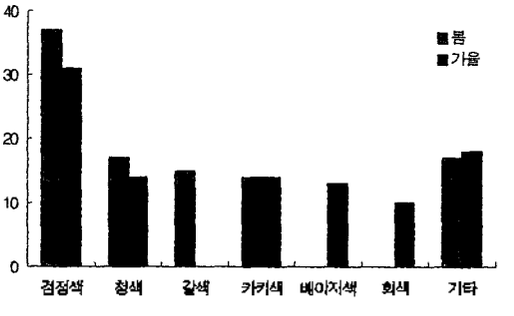
봄·가을학기 동안 유행한 상의, 하의, 신발, 가방의 칼라류 및 착용빈도를 제시해 보면 〈그림 6〉~〈그림 9〉와 같다.



<그림 7> 하의의 칼라 현상



<그림 8> 신발의 칼라 현상



<그림 9> 가방의 칼라 현상

V. 결 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캠퍼스 복식행동을 이해하고자 그들의 실제적인 의복 착용 동기를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하고, 이들 유형을 포지셔닝화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복착용동기로서 나타난 여대생의 봄·가을 패션경향을 밝히고, 앞으로 여대생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상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여대생의 의복착용 동기는 일과(日課) 의존형, 이미지 의존형, 체형 보완형, 일기(日氣) 의존형, 유행 의존형, 예의 의존형, 기분전환형, 요일(曜日) 고려형, 무의식형 순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응답은 중복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복착용동기 유형의 포지셔닝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첫 번째 결과인 여대생들의 의복착용동기는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졌던 여러 동기설의 긍정적 조합으로서, 보다 사실적으로 접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대생들의 의복착용 동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그날 그날의 상황을 고려한 '일과(日課)'와 자신들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들에게 '신분과시'나 '성적매력추구 및 유행추구' 동기는 과거보다 약화되었으며, '체형보완'이나 '일기(日氣) 의존'이 새로운 동기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 '일기(日氣) 의존형과 요일(曜日) 의존형'은 '일과(日課) 의존형'에, '체형보완형과 유행 의존형 그리고 기분 전환형'은 '이미지 의존형'의 근접 동기로 볼 수 있으며, '예의 의존형'은 '일과(日課)와 이미지 의존형'의 공유적 동기로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위의 의복착용 동기로 나타난 봄·가을 학기의 캠퍼스 패션 경향은 티셔츠에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고 그 위에 마이나 남방 또는 가디건을 걸치는 레이어드 형식의 기능성과 활용성을 높인 캐쥬얼복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여성의 상징으로 더 이상 스커트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색상은 봄·가을 학기에 상관없이 흰색, 검정색, 회색이 상의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하의로

는 청바지색인 청색과 검정색, 베이지가 주를 이루었다. 신발은 검정색, 갈색, 황토색이 주를 이루었으나 가을 학기에는 흰색이 검정색보다 많이 신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봄은 겨울의 연속이고, 가을은 여름의 연속이라 여름에 신었던 흰색 계통이 계속 신겨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가방은 학기에 관계없이 배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색상은 검정과 청색, 카키색 또는 갈색이 주를 이루었다.

세번째로 위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 여대생들의 패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과(日課) 의존형'을 위해서 편리성과 활동성이 강화된 의복 생산이 요구되며,

(2) '체형 보완형'을 위해서 힘을 가릴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옷, 소매둘레가 가늘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옷, 또는 다리가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옷의 디자인이 요구된다.

(3) 봄부터 가을까지 비올 때 많이 착용하는 반바지나 스커트의 소재 개발, 즉, 투습방수 소재, 비침방지 소재, 방오가공 소재의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4) '유행 의존형'을 위한 의복으로서, 이들 세대의 특성인 개성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유행을 따르면서도 유행을 따르지 않는 듯한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의복디자인이나 소재 즉, 완성된 옷이 아니라 연출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심플한 옷의 디자인과 여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악세서리를 개발한다든가,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서모크로믹 소재의 활용이 요구된다.

(5) 이들 세대에 있어서 예의있는 의복은 과거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본다. 세탁과 손질, 착용감, 형태 유지가 용이한 신소재를 이용한 세미정장 스타일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6) '기분 전환형'이나 '요일 고려형'을 위해서는 디자인 전략보다는 판매전략이 요구된다. 즉, '월요일의 활력을 불러 줄 수 있는 헤어드레스와, 당신만의 개성을 악세서리로' 등이라든지, '지루한 수 · 목요일을 위한 화려한 변신' 등과 같이 요일에 따라 기분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판매촉진 전략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복 착용의 동기유형 포지셔닝'은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결과이므로, 이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송백채, "우리나라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유연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의류 소비시장 세분화와 광고 전략",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유지현, 이성희, 한명숙, "대학생 복식 현상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2권 1호, pp. 55-76, 1994.

이한식, 안광호,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 접근-, 법문사, 1997.

임종원외 3인, 소비자 행동론, 경문사, 1995.

정인희, 이은영, "의복착용동기와 유행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1호, 1999년 1월, 한국의류학회, pp. 128-139, 1999.

홍병숙, 패션상품과 소비자행동, 수학사, 1998.

홍영진,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표선택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Kaiser, S. B., 김순심외 역, 복식사회 심리학, 경춘사, 1991.

Alder Alfred, *"The Science of Living"* in Anchor Book, eds., N. Y: Dougleday & Co., pp. 38-47, 1969.

Bloch, Peter, H. & Bruce, G. D., *Product Involvement as Leisure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1984.

Evans, S. E., *"Motivations Underlying Clothing Selection and Wear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6. p. 732-758, 1964.

Firth, R., *Symbols : Public and Private*,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1975.

Flugel, J. C.,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garth Press, Ltd, 1930.

Harms, E., *"The Psychology of Cloth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p. 228-253, 1938.

Horn, M. J. & Gurel, L. M., *The Second Skin-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Inoue, S., *Interactions and interpretations in everyday life*, In N. K. Denzin, ed. Studies in Symbolic Interaction, vol. 1. Greenwich: Jai Press, Inc, 1980.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Langer, L.,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New York: Hastings House, 1959.

Lapitsky, Mary,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Ph.D.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1.

Laver, J., *A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9.

Mills, C. W., *Situated actions and vocabularies of mo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 pp. 904-913, 1940.

Ryan, M. S., *Psychological Effects of Clothing*, Part I, Cornell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ulletin, 882. p. 24, 1952.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65.

Veblen, T.,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31.

Westermark, E. A., *History of Human Marriage*, London: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21.

Ceci, 1998~1999년, 3, 4, 5, 9, 10월호, 중앙 M & B.

Elle, 1998~1999년, 3, 4, 5, 9, 10월호, 한국일보사.

Kiki, 1998~1999년, 5, 6, 8, 9월호, 중앙 M & B.

Coollie, http://www.coollie.com/